

강진아 지음,
『이주와 유통으로 본 근대 동아시아 경제사』
에 대한 논평

2019. 9. 18.

조영준

이 책에서 주목할 만한 점

- 경제사 연구 대중화 사례의 모범
 - 중국사, 한국사, 일본사와 교차하며 동아시아사 차원에서 동순태호의 역사와 담걸생의 일대기를 재구성
 - 저자 자신의 연구에 기반하되 기존 연구를 두루 섭렵하여 종합하였음
 - 구체적 사례 연구이자 실증 연구로서는 드문 경우
 - 거시적 경제 구조의 변화 속에서 미시적 경제 활동의 양상을 부각함
 - 시간 순서로 잘 짜여진 역사서 – 근대 동아시아사 입문서로 활용 가능
 - 11개 장과 29개의 테마 – 테마를 통한 확장성 제공
 - 쉽게 읽히는 글

Q1. 동순태호 기록의 현존이라는 우연성?

- “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있는 화교 상점의 장부 및 서신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귀중한 컬렉션”(p.364)
- 의문점: 조선에서 활약한 외국 상인에 대한 종합적(실증적)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, 사료의 현존 상황에 의존한 담걸생(동순태호) 연구가 가지는 특수성(또는 예외성)을 통해, 당대 화상(청상)의 한국 내 경영의 실태를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인가?
 - 달리 말하자면, 다른 사례에 대한 후속 연구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?

Q2. 한국사의 틀로 재서술될 수도?

- 이 책에서는 전반적으로 중국사의 배경 해설이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데, 화상의 활동 무대인 지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사의 틀 속에서 동순태호의 역사가 재서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?
 - 예: 화교사가 아닌 유통사의 관점에서
- 일반적 흐름에 대한 서술도 필요하겠지만, 무역상으로서의 경쟁 관계에 있었던 한상(예: 박승직 상점)과의 경쟁(?)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탐구해 볼만 할 것임
 - 이 책에서는 육의전 관련 내용이 소략하게 나오고 있는 정도임

Q3. 비교사적 접근과 확장의 가능성?

- 중국 현지에서 경영한 동태호의 운영 양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지?
- 동아시아 유통사의 관점에서 일본 상인의 경영 사례에 대한 연구 상황은?
- 차기작으로 준비중인 구교(歐僑) 자본에 대한 연구(p.373)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?